독자 편지 Letters to the Editor

" 실패 극복 스토리도 함께 실어주었으면 "

<인터뷰>나 <이사람> 같은 인물 인터뷰 기사를 즐겨 읽는 편이다. 세간의 화제를 모으는 건축물을 설계했거나 시공한 사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킨 사람 등 매우 흥미로운 기사들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사들은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 위주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편이다. 사람마다 일하는 분야나 관심사는 다르지만, 또 비록 나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실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고난의 순간은 있게 마련이다.

「건설저널」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 아쉽다. 실패를 극복한 사례들도 함께 취재해주었으면 한다. 재미와 감동을 함께 가져다 줄 수 있는 인터뷰 기사를 많이 발굴해주기를 바란다.

이창수 · 유로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CEO 다이제스트> 매우 흥미로워 "

「건설저널」는 건설 현장 근로자인 내게 많은 읽을 거리를 제공해준다. 건설업계의 당면한 현안 이슈들을 살펴보는 <이슈진단>, 건설 관련 기술을 조사해보는 <경영 · 기술 포커스>,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프로젝트 NOW>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CEO 다이제스트-애널리스트가 본 건설기업의 재무 구조>였다. 요즘처럼 대내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증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건설주들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주역이 건설업임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건설업이 다시금 침체된 우리 경제를 회생기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건설인들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세호 · 범건축 대리

" 건설업 회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를… "

이미 모든 건설인들이 감지하고는 있겠지만 우리 건설업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설저널」 10월호의 <커버스토리-2002 경기 전망>에서도 내년도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우리 건설업은 언제쯤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건설저널」 다음호에서는 지난호의 전망에 이어 회생 방안을 명쾌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이병섭 · 금호산업(주) 차장

" 건설 관련 자격증 정보에도 관심을…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 관련 학과는 꽤나 취업이 확실한 학과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공을 바꾸라고 하는 소리마저 심심찮게 내 주위에서 들린다.

물론 국가 전체적인 경제 위축으로 인한 결과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건설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건설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저널」을 열심히 구독하는 건설학도로서 「건설저널」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 건설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 관련 자격증 정보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유한성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 「건설저널」의 새로운 지면 반가워 "

「건설저널」에 새로운 지면이 많이 등장해 반가웠다. <풍수지리> 코너나 <퍼즐> 코너 모두 흥미롭다. 사실 건설업이란 게 재미 있는 산업이 아니다보니 「건설저널」도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새로운 <풍수지리> 코너나 <퍼즐> 코너가 「건설저널」의 경직된 편집을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어 대환영이다.

앞으로 평범한 건설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여행'이나 '취미' 코너도 신설하면 「건설저널」이 더욱 건설인들에게 친근한 잡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갑철 ·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

'독자편지' 코너는 그야말로 독자 여러분의 열린 광장입니다. 평소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하고 싶었던 말, 정책 · 제도의 평가, 제안을 비롯하여 단상, 애환, 비전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cerik.re.kr)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보내 주셔도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